

섬진강 수질보전 머리 맞대

진안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제35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기관 진안군) 정기총회가 섬진강유역 11개 자치단체와 6개 특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예산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섬진강 문화유적지 탐방, 섬진강 수질보전 워크숍, 토종어류 방류 등 시·군 자율사업 등을 협의하였으며, 섬진강 수계 하류 지역의 현안 문제 공동 해결 방안 모색과 더불어 섬진강의 홍보, 생태관리를 위한 당면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섬진강 수계는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보성강댐, 주안댐, 상사댐, 동북댐이 차례로 건설되면서 섬진강의 하천 유지수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지역의 열해 뿐 아니라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물이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고, 내서댐 건설 반대 공동건의문 전달, 섬진강 유역 내 쓰레기 수거



제35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섬진강유역 11개 자치단체와 6개 특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활동비 지원, 골재채취금지, 어류포획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토종어류 보호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생태·문화·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진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가며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호 진안군수는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진안군은 '제초제 안쓰는

우렁이 농법' 전면 시행, 쓰레기 안버리고 안묻고 안태우는 '쓰레기 3NO운동' 전개, '전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오염원을 줄이고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행복한 섬진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호관계간 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회원기관 모두 적극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3월 8일까지... 사과·모바일 마케팅·6차 산업과

무주군이 반딧불농업대학 9기 수강생 1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8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 또는 읍면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 농업인 상담소에 하면 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 간 반딧불 농업대학에 등록만 하고 졸업하지 못한 농업인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딧불농업대학 개강(입학식)은 3월 21일(~11월 9일)로 사과과(50명/매주 화요일 14:00~18:00), 모바일 마케팅과(30명/매주 목요일 14:00~18:00), 6차 산업과(30명/매주 금요일 14:00~18:00)로 운영

된다. 사과과는 사과 재배 경력이 5년 이하인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며 2016년에 사과과를 수강했던 농업인은 후순위로 선발 예정이다.

무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 하현진은 "운영과정은 올해 2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며 "반딧불농업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실현을 주도할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 작년 까지 총 9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무주군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국비 4,830만원, 군비 2,070만원)은 상담(심리·진로, 학습동기 강화, 가족 관련), 학습(진학, 검정고시,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취업(직업체험, 진로교육), 자립(생활·건강·정서)지원 프로그램과 건강증진(검진, 건강생활 실천, 체력관리)과 특성화(재능개발, 자원봉사), 멘토링(교과서 학습지원, 특기적성지도) 프로그램 등이다.

꿈드림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수여제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재직, 퇴학, 자퇴 청소년,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무주읍 한평루로 무주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kdream.or.kr)·지역꿈드림 찾기·무주군꿈드림·신청)나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페(http://cafe.daum.net/mj1388)가입 후 신청, 페이스북(www.facebook.com/mjukdream)·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mjukdream)에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전국 군 재정력·행정서비스 평가 2위

한국지방자치학회 시행... 행정서비스 5위·재정력 11위

완주군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한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23일 완주군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한국일보와 함께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학회의 전문가 분석(재정력·행정서비스)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만2900명의 설문조사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행정서비스 5위, 재정력 11위 등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특히 완주군은 500원 으뜸택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통학택시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 귀농귀촌 인구 증가,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인구 10만 시대 개막과 시 승격도 준비 중인 것도 순위를 높이는 데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 군 중 10위권에 포함된 곳은 완주군이 유일하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에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제2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에서 전국 82개 군(郡) 중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성일 군수는 "주민을 우선시 하고 주민이 직접 군정의 주인공이 되는 소통행정을 펼친 것이 연이은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 3대 비전은 물론, 어르신 복지와 미래세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으뜸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이력관리제' 신청해도 5년간 재신청 안내

진안군은 23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된 수급희망자에게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해 결과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소득·재산

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이력관리제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신청과 동시에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 안전 45건 심의

장수군은 23일 장수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1회 추경예산 편성심의를,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안 등 총 4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군은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 도입 3년째를 맞이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 9명,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장수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심의안은 ▲장수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이 심의됐고,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건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이 심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5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재정투자사업·지방보조금 예산편성·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 총 73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임병수 위원장은 "올해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예산의 선심성·남비성 편성을 방지하고 보조사업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전한 완주' 사용 신청·접수 3월 15일까지

완주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생산자별 조서 등이다.

완주군은 신청서 접수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삼례농협 등 21개 단체, 딸기, 수박 등 36개 품목에 대해 사용 승인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한 완주' 상표를 달고 농특산물이 출하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 교육

장수군은 23일 한누리리조트 다목적실에서 지난 15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내 82개소 특별할인가맹점 및 관계 공무원 20명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80여 개의 특별할인가맹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특별할인가맹점(82개소)을 대상으로 패스카드 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및 응대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인삼 시설재배 단지 조성

진안군은 23일 대표 특산물인 진안고원 인삼을 1시간 1특산물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인삼 재배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해 1.3ha 규모의 인삼 시설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6년근 인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삼 하우스 재배는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에 고온장애 억제 전용차광 필름과 친환경 무인방제 기술을 도입하여, 관행 재배법보다 고온장애와 병충해를 줄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